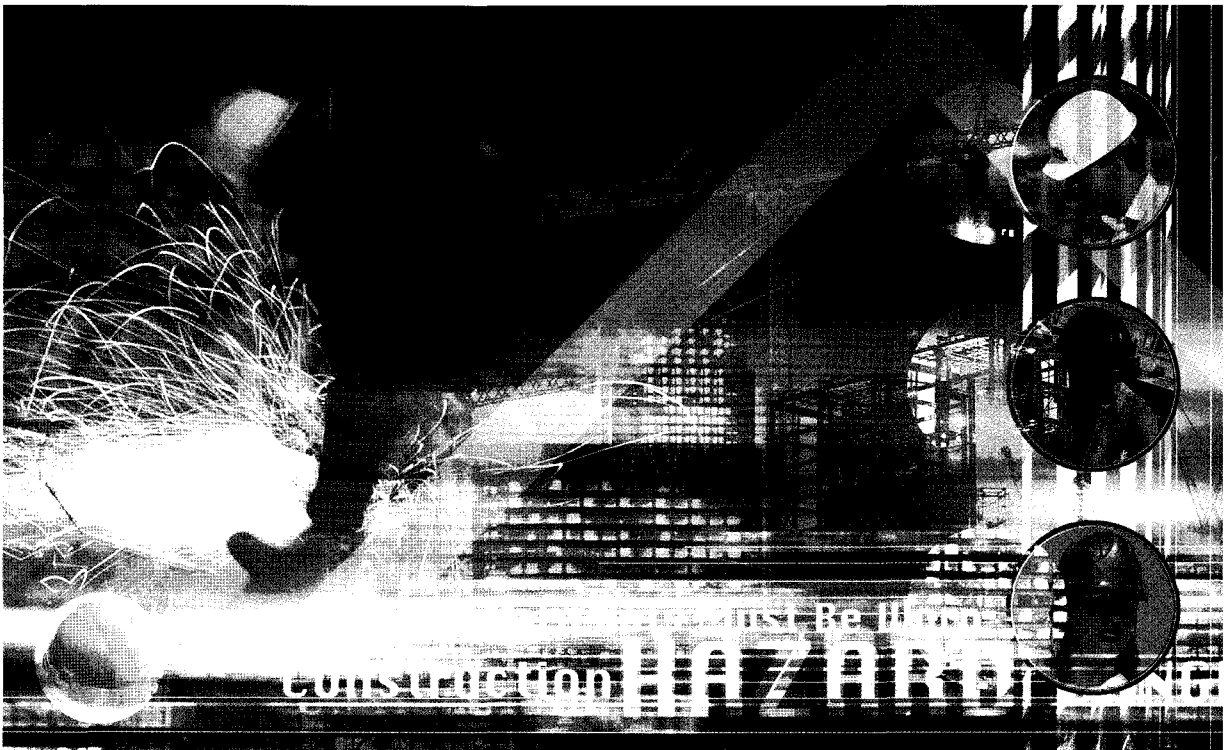


‘주 5일 근무제’ 시행에 따른 근무 시간 단축이 건설업에 미치는 영향

정부는 다음달부터 ‘주 5일 근무제’를 부분적으로 도입하고 점차 확대 시행하여 전면적으로 실시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주 5일 근무제’가 전면적으로 실시될 경우 국가 전체로 연간 약 3조 2,500억원의 생산 감소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분석됐다.

‘주 5일 근무제’는 근무 시간 단축으로 보다 많은 고용증대 효과와 노동생산성 향상이라는 장점이 있지만 그에 따른 기업의 부담은 결코 무시할 수 없다. 이에 커다란 쟁점이 된 근로 시간 단축으로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알아 보았다. <취재 | 왕희삼 기자>



노 사정위원회의 내부 이견으로 인하여 지난해 말 이후 교착 상태에 빠졌던 근로 시간의 단축 일정, 휴일·휴가제도 등이 최근 들어 다시금 고개를 들고 있다. 노동계에서는 올해부터 주 40시간 근로제를 전면 시행할 것을 주장하지만, 경영계는 2010년까지 5 단계에 걸친 단축 일정을 제시하여 노동계와 경영계간의 많은 의견 격차를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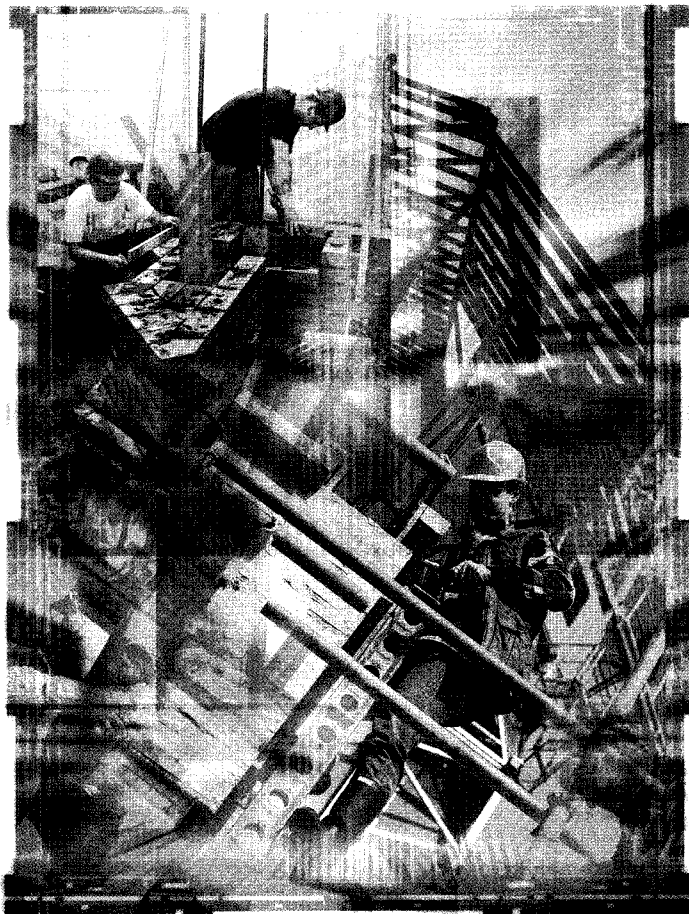
건설업 역시 월 평균 근로 시간이 감소 추세에 들고 있다. 노동부 통계 조사자료에 따르면 월 평균 근로 시간이 1980년 219시간을 정점으로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여 2000년에는 193.2시간으로 근로 시간이 25.8시간 단축되었다.

건설업의 근로 시간은 월 평균 근로 시간 193.2시간을 주당 근로 시간으로 환산한 44.5시간으로 전체 산업의 주당 평균 근로 시간 47.2시간에 비해 2.7시간 적고, 제조업에 비해서는 4.6시간 적다.

하지만 서비스 업종과는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낸 것으로 분석되었다. 일용 근로자는 주당 평균 근로 시간은 48.8시간으로 추정되며, 이들을 포함한 전체 건설 근로자의 주당 평균 근로 시간은 47.3시간으로 파악됐다.

근로 시간 단축으로 발생하는 공사 비용 증가요인

주당 법정 근로 시간은 4시간 단축되지만 실 근로 시간은 종전과 같고 종전의 기본 임금 수준이 보전



된다면, 인건비를 14.5%, 공사비를 4.2% 인상시키게 된다.

종전 기본 임금 수준의 본전으로 시간당 급여액이 불가피하게 상향 조정될 것이며, 법정 근로 시간이 단축된 만큼 초과 근로 시간이 증가한다면 건설업 평균 초과 근로 수당 인상률은 145%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어 건설업체에 많은 부담으로 안겨질 것으로 보인다.

시간당 급여 수준이 인상되지 않고 법정 근로 시간이 단축된다고 가정할 경우에는, 초과 근로 시간만 증가하여 평균 4.1%의 인건비 상승 요인이 발생

한다. 또한 주당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할 경우 기존 인력의 9.2%인 12만 2천명이 추가로 필요하며 이들에 대한 급여로 인건비가 11.2%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 기간 연장에 따른 공사비 증가의 요인으로 공사 기간이 6.5~11.3% 정도 연장될 경우, 공사비는 2.8~4.6% 인상될 것으로 추정되며 공사 기간 연장은 인건비 증가, 임차료 및 감가상각비의 비례적 증가, 투입 공사 비용에 대한 금융 비용의 발생 등의 요인으로 공사비 증가를 유발할 것이다.

종전의 기본 임금 수준이 보전되면, 공사 기간 연장으로 총 급여액은 7.6~12.4% 인상되어 공사비를 2.2~3.6% 증가시키고, 공사 기간의 연장에 비

례하여 임차료 및 감가상각비가 증가한다면, 이로 인한 공사비 증가율은 0.4~0.7%에 이를 것이다. 또 투입된 공사비에 대한 이자만큼의 금융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로 인한 공사비 증가율은 연간 약 0.2~0.3%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노동 생산성 및 공사 기간의 변동

공사 기간은 근로 시간 및 근로 일수의 단축에 따라 노동 생산성이 얼마나 영향을 받느냐에 따라, 6.5~11.3% 범위에서 연장될 것이다. 노동 생산성이 일정하고, 주당 실 근로 시간이 법정 근로 시간이 단축된 만큼 4시간이 줄어들면 공사 기간은



9.2%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근로 시간이 단축될 경우 피로의 감소로 사고 발생률이 떨어지며 개인 능력개발 활동 증가, 근로 감독의 강화 등으로 노동 생산성은 향상되는 것으로 기대된다.

주당 근로 시간이 1시간 단축 되면 노동 생산성은 0.64% 증가하며, 또한 주당 근로 시간이 55시간 이하에서는 주 5일 근로가 주 6일 근로할 때보다 노동 생산성이 2~7% 정도 떨어지는 것으로 미국 텍사스대학 건설산업연구소에서 조사됐다.

따라서 근로 시간 4시간 단축으로 노동 생산성이 2.6% 증가할 때 공사 기간은 6.5% 연장될 것이며, 주당 근로일 수가 6일에서 5일로 단축됨에 따른 노동 생산성 저하가 2~7%의 중간인 평균 4.5%라 하면 공사 기간은 11.3% 연장될 것으로 분석된다.

상명여대 백용기 교수는 “주 5일 근무제 시행으로 법정근로시간이 4시간 줄어들면 농림어업과 기타 서비스업을 제외하더라도 단기적으로 산업생산이 연간 0.75%, 3조 2,500억원 가량 감소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특히 제조업은 근로 시간 단축에 따른 생산감소가 비율로는 연간 0.69%, 금액으로는 1조 4,900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근로 시간 단축 및 공기 연장에 의한 공사비 증가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예정 가격 작성 준칙 등의 개



정이 필요하며, 공사비 증가 및 공사 기간 연장의 반영, 탄력적 근로 시간 제도의 확대 도입 등이 요구된다.

특히 계절에 따라 근로 여건이 크게 나르고, 공사 불량의 편차가 크게 나타나는 건설업에서는 탄력적 근로 시간제의 대상 기간 및 근로 시간 변동 범위의 확대가 필요하다.

이와 같이 '주 5일 근무제'를 도입·추진하더라도 그 시기를 늦추거나 기준을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제도 도입 이후의 단기적인 효과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시행해야 한다. (㉞)